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9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에 남북전쟁 영웅을 기리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빙엄턴(Binghamton)의 434 번 주 고속도로 구간에 이 지역을 위해 싸운 남북전쟁 시기 영웅의 이름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안(A.9233A / S.7066)은 빙엄턴시 434 번 주 고속도로의 펜실베이니아 대로(Pennsylvania Avenue)와 사우스 워싱턴가(South Washington Street) 사이 구간을 **Col. David Ireland Memorial Highway** 로 명명한다고 지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vid Ireland 대령은 사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방을 위해 방어한 뉴욕의 가장 훌륭한 모범입니다. 이번 명명은 Ireland 대령이 국가에 복무한 헌신을 기리고 그와 137 사단이 보여준 용기를 기념할 것입니다.”

David Ireland 대령은 1832 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840 년에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863 년, Ireland 대령과 137 뉴욕 보병 사단은 연방군의 Culp's Hill 을 사수하며 북부연방이 게티즈버그 전투(Battle of Gettysburg)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Ireland 대령이 사망하던 해까지 137 사단은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137 사단은 게티즈버그와 남부 전역에 기념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지만 그들이 훈련을 받은 “홈 타운”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기념 고속도로는 그 장소를 기념하고 그들이 했던 복무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는 우리의 영웅들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상징하는 명예,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기량을 기념합니다. Ireland 대령은 훌륭한 지휘관이며 우리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헌신적인 전사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로서 David Ireland 대령과 같은 영웅을 기념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가 고수하였던 원칙과 성실함을 이어나가며 그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onna A. Lupardo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reland 대령과 137 뉴욕 지원군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공훈은 1864 년에 Ireland 대령이 사망하고 나서 거의 잊혀 있었습니다. 150 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 부대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전사들이 훈련받은 지역에 가깝고 명칭 변경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의 한 단락을 보존하게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